

2016. 2차 등록금심의위원 회의록

일 시	2016. 1. 13(수) 16:00~17:15
장 소	학생처장실 (본부 1층)
참석자	위원장 : 변재경 위 원 : 박한순, 전찬주, 이상태, 이진희, 김창섭, 김태영, 송지호, 윤대기
불참자	없음

『주요내용』

- 위원장 : 눈도 오고 곳은 날씨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1차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는 학부생등록금은 동결로 결정하였으며 2차 회의에서는 대학원 등록금 심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. 지금부터 대학원 등록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정진혁 팀장께서 회의 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정진혁 : 회의 자료설명
- 위원장 :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려면 그에 따른 인상 요인이 있어야합니다. 회의 자료에 대학원 인상요인이 있음에 따라 대학원 등록금 인상에 대하여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- 김창섭 : 학부생과 대학원생 간 회계구분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?
- 전찬주 : 회계 구분은 따로 되어있지 않으나 대학원생만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습니다.
- 박한순 : 대학원 등록금 인상분은 성적장학금 등 대학원생만의 장학금으로 쓰여졌으면 합니다.
- 김창섭 : 등록금은 인상하고 인상분을 일부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준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
- 전찬주 : 대학원 장학금 지급률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우리대학은 전국대학 대학원등록금 중 등록금 금액이 최하위입니다.
- 김창섭 : 대학원등록금 인상분은 대학재정에는 큰 도움이 안됩니다. 장학금 지급에도 큰 도움이 안됩니다. 다만 장학금 평가에서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전찬주 : 대학원 등록금 인상을 전체 등록금 인상으로 언론 보도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.
- 송지호 : 대학원 평가에서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?
- 위원장 :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대학인지도 상승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.
- 김태영 : 인상에 따른 재정 심각성 해결보다는 의견수렴이 원활히 되지 않은 부분의 부정적 부분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.
- 전찬주 :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미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어 어렵습니다.

- 김태영 : 의견 수렴 절차와 대학원생 대표가 없이 대학원생의 등록금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대학원생에게만 투자한다는 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.
- 전찬주 : 타 대학 인상에 비해 우리대학 등록금이 최저인데도 불구하고 머물러있는 것이 아쉽습니다.
- 김창섭 : 전북대학 인상여부에 따라 언론비판이 걱정됩니다. 1년 홍보예산만큼 인상되는 금액인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 걱정입니다.
- 김태영 : 인상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없습니다. 다음 회의에는 등록금 심의위원으로 대학원생 추가를 요청합니다.
- 이진희 : 대외적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인상 시기를 늦출 수 없습니까?
- 정진혁 : 등록금인상 여부는 1월 20일까지 결정되어야하나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결정되어야합니다.
- 전찬주 : 대학원생은 대표가 없어 대표성 선발이 어렵습니다. 내년에도 대학원생의 대표성 선발이 어려울 것 같아 총학이 의견을 수렴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.
- 김태영 : 명분이 명확하면 인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- 전찬주 : 인상에 대한 언론이 부담이 됩니다.
- 박한순 : 인상률은 걱정이 없습니다. 사용용도도 장학금으로 사용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나 언론과 타 대학 현황을 보고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- 김태영 : 투표권이 없는 대학원생 대변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.
- 위원장 : 총학생회장이 대학원생의 의견을 수렴해줘서 다행이며 의견 중 정확한 명분만 있으면 인상을 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기에 사용목적이 확실하고 타 대학 사황을 보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주었으면 합니다.
- 김창섭 : 대학원은 선택적 교육이라 보기에 인상을 찬성합니다. 정부에서 등록금을 통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인상분 사용처는 학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봅니다.
- 김태영 : 위임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. 학부생, 대학원생 동일하게 가야한다고 봅니다.
- 이진희 : 학부생 인상은 불가능합니다.
- 김창섭 : 등록금 심의는 졸업 후까지 대학발전을 고려해야하기에 등록금 동결은 학교가 계속 침체되는 것으로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
- 위원장 : 대학원 등록금을 1.7%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총장님께 위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.

- 김태영 : 대학원생 등록금 심의를 연기 요청합니다.
- 김창섭 :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제입니까?
- 전찬주 : 만장일치제는 아니나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해왔습니다.
- 위원장 : 그럼 충분히 의견을 사전 조사하였고 대학원등록금이 전국 최하위수준임을 감안하여 대학원등록금 인상 찬성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
- 박한순 : 찬성합니다.
- 이상태 : 찬성합니다.
- 이진희 : 찬성합니다.
- 김창섭 : 찬성합니다.
- 전찬주 : 저는 직책이 학생과장이라 총학생회장이 찬성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 총학생회장과 대화를 하겠습니다.
- 김태영 : 대학원등록금 인상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과 조사가 있는 후에는 결과에 따라 찬성을 할 수도 있으나, 현재는 반대입니다.
- 송지호 : 인상에 반대합니다.
- 윤대기 : 명분이 확실하기에 찬성합니다.
- 위원장 : 충분히 자료로 설명하였고 대학원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으며 1.7%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. 9개 대학원 중 일반대학원, 교육대학원, 행정대학원, 경영대학원, 법무대학원, 의생명과학경영융합대학원, 의학전문대학원은 전년도 등록금 대비 1.7% 인상하며, 산업대학원은 동결,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전문협회의 결과에 따라 차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2016학년도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수고 하셨습니다.

결			계		
팀 장	이종희	학생과장	(차진주)	등록금 심의 위원장	卞在京

학 생 대 표					
총학생회장 김 태 영	김태영	총대의원장 송 지 호	송지호	공과대 학생회장 윤 대 기	윤대기